

연중 제 15 주일

제 1 독서 : 이사 55, 10-11

제 2 독서 : 토마 8, 18-23

복 음 : 마태 13, 1-23

# 순정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마태 13, 23).

## 강론

## 소리

### “심전(心田)을 닦은 사람들”

김진소 신부 / 호남교회사 연구소

어디서 읽었던가 기억이 아름아름하지만 신앙의 선조께서 남긴 글에 이런 말이 떠오른다. “무릇 천당 영복을 얻으려거든 심전(心田) 공부에 힘쓸지라.”는 것이다. 이 말을 인상깊게 기억한 것은 심전이라는 용어가 불가(佛家)에서 사용하는 말인 까닭이다.

불가에서는 밭이 온갖 곡식의 싹을 내는 것처럼 마음은 그 사람 안에 선악의 싹을 낸다 해서 마음을 심전이라 부른다. 우리 조상의 말 뜻은 누구든지 꿈을 꾸어도 하느님 나라요, 노래를 불러도 하늘 나라 노래를 부르려거든 심전을 닦는 일에 전심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도 영생의 씨를 심전에 뿌리는 농부의 모습을 연상하며 이해한다면 어떨까.

더러 이런 질문을 종종 받을 때가 있다. 도대체 치명하신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초연히 죽음을 넘어갈 수 있었는가? 그 물음에는 이런 대답이 가능할 것이다.

그들은 무엇보다 하느님과 그 나라를 자기들이 체험한 실제의 삶에 뿌리를 두고 파악하며 이해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에 감증을 느끼며 하느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마음의 깊은 밭에 받아들이고 믿었다. 청정한 마음을 닦으며 진실된 태도로 하느님의 뜻을 깨닫고자 골몰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침묵과 고요함을 즐겼다. 그들은 교리공부를 하건 신심 서적이거나 성서를 읽건 눈으로 읽지 않고 묵상하듯 했다. 지식과 지적인 만족을 채우려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하느님의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였던 까닭이다.

그들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판단을 비우고, 하느님의 뜻과 능력을 신뢰하면서 솟아오르는 기쁨을 맛보았다.



### “T.V 사정(?)”

몇몇 시민단체들이 텔레비전의 문제점을 들고 나섰다. 이래서 지난 7월7일에는 ‘텔레비전을 끄시다’라는 운동이 벌어졌다. 이 운동에 동참한 국민들이 얼마였는지는 몰라도, 참으로 바람직한 국민운동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텔레비전을 ‘바보상자’라고 말하면서도 그 바보에게 낯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도둑들도 프로그램의 황금시간대를 이용하기도 한다고 한다. 텔레비전이 뭐길래, 프로그램 선택권을 놓고 집안 식구들끼리 다투기까지 하는가? 별 것도 아닌 연속극에 정신이 팔려서 식구들과의 대화마저 끊는가? 공부해야 할 자식들이 텔레비전 앞에 죽치고 앉아 있는 문제 때문에 속상하는 경우는 얼마나 많았던가? 어른들이 텔레비전을 보지 않으면 쉽게 해결될 문제인데도 말이다. 텔레비전은 정녕 이 시대의 아편인가?

텔레비전의 유용성을 전면 부정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안방에 비집고 들어오는 유치하고 낮 뜨거운 말들,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선생님의 가르침보다, 저명한 어른들의 훌륭한 말씀보다 코미디언들의 몸짓과 말 한마디가 더 위력을 지니고 있는 현실 앞에서 할 말을 잃고 만다. 정말로 이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상한 차림으로 벌이는 광란의 몸짓과 괴성도 문제다. 젊은이들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겠지만, 어디까지 가자는 것인지 모르겠으니 그것이 문제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말하면서, 성역이 없다는 사정을 생각하는 연유가 뭔지 모르겠다. ㉠

### 순정이 산책



철저히 파헤쳐라!

특 집

# “한마음 한몸 운동과 시신 기증 운동”

전북 의대 이무삼(마태오) 교수

제 44 차 세계성체대회('89.10.5-8) 실천 방안인 '한마음 한몸' 운동의 목표는 자기 회생을 통한 영신적, 물질적 능력과 재화를 하느님께 봉헌함으로써 이웃과 나누고 이념과 빈부의 갈등을 해소하여 모든 이들이 하느님 안에 하나되어 그리스도의 참평화를 이루는데 있다. 이에 '한마음 한몸' 운동 본부는 구체적으로 ①생명의 나눔(헌혈, 안구, 장기 기증 등) ②재물의 나눔(헌미 등) ③보금자리의 나눔(입양, 결연, 복지시설 등)을 추진해왔다.

아래의 글을 읽고 '한마음 한몸' 운동 정신으로 많은 이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지난 '89년 10월 서울에서 열렸던 제44차 세계성체대회 실천 방안으로 전개했던 '한마음 한몸' 운동은 세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지금도 많은 신자분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의 하나가 나눔이라고 할 때 '한마음 한몸' 운동에 참여하고 계신 신자분들의 고귀한 마음에는 나눔으로써 일치를 이루기 위한 말없는 신앙고백의 뜻이 가득 담겨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사랑의 실천인 나눔에는 물질을 통한 나눔과 자기 회생을 통한 나눔이 있는데 시신 기증은 자기 회생을 통한 사랑의 마지막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문구들은 시신이 부족하여 의학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고 죽어서도 회생을 아끼지 않겠다는 비장한 십자가 정신으로 기증 서류를 내신 분들의 유언장 일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나는 질병을 앓는 이웃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나아가 질병 없는 건강한 미래를 우리 자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내가 죽은 다음 내 몸을 의학계의 교육마당에 아무 조건없이 기증하겠으며 이 대학에서 시체 해부 보존법의 규정에 따라 해부되고 처리되는 것을 승낙합니다.” “인생의 모든 욕심은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헛된 것이다.” “기증을 하고 나니 마음이 참으로 가볍다.” “인체의 오묘하고 복잡한 구조가 하느님의 사려깊은 작품이라고 생각할 때 죽어서 그대로 썩어 없어지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까운 일이어서 죽은 내 몸을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일까 깊이 생각한 끝에 의학계의 교육과 연구 재원으로 기증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렇습니다. 시신 기증이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몸을 후세의 교육이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무 조건없이 의학계 대학에 기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살아 있을 때 내가 받은 하느님의 은총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기증 서류를 내셨거나 기증 의사를 밝히신 분들은 사제, 사회사업가, 의사, 교수, 회사원 부부 및 형제 등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신부님께서서는 “나의 몸 일부뿐만 아니라 전부가 필요한 곳에 쓰여지길 바란다.”라고 하시어 죽어서도 사랑의 실천을 몸소 밝히신 바 있습니다. 또한 인후성당 신자이신 모 신협 부이사장님 부부께서는 “이 사회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 살면서 주는 삶이 되지 못하였는데 시신이라도 줄 수 있다니 기쁜 마음으로 기증하겠다.”라고 하시어 온몸으로 사랑을 실천하셨을 뿐 아니라, 기증 절차에 관하여서도 자세한 유언을 하시어 기증자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동양사상에 젖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연구 재료로 기증할 것을 결심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의 십자가 수난을 생각할 때, 죽음이 부활의 시작이라 할 때, 그리고 종교인으로서 세상의 소금과 햇빛이 될 후세대의 교육에 밑거름이 되기로 마음을 정할 때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마지막 좋은 기회가 시신 기증이라 하겠습니까. 시신 기증을 하여 작은 그리스도도가 되고자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자세한 안내 책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시신을 기증한 분들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 전북지역 시신 기증 운동 협의회 본부 및 전주지부 : 560-180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  
전화 : (0652)70-3103, 3097
- \* 이리지부 : 570-030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 전화 : (0653)50-6757

**전주 하리스포츠**  
자갈텐트, 등산용품, 낚시  
운동기구  
(20~40% 할인 판매)  
송혜리(살로메)  
판통로 통신공사 건너편  
☎ 84-2941, 88-1960

**구(九) 죽 염**  
대리점 모집  
• 판매하실 분  
• 소자본으로 가능  
• 관심있으신 분 연락바람.  
이영근(마지아)  
☎ (0658)44-4760, 547-9970

**성심한복**  
캐기, 모시, 레지오 단기,  
회합포, 수의 일체  
배망녀(바올라)  
☎ 222-0173  
☎ 012-680-1595

**금동상회(남선대리점)**  
양은, 스텐 식당용  
혼수품 일절, 전북 도매  
김연옥(수산나)  
☎ 84-1606  
☎ 84-5627

5분교리 35

“고백성사(告白聖事)”

고백성사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화해, 평화의 은총을 얻는 성사이다. 참 이상한 일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례성사로써 하나님 안에 새로 태어났고 하나님 친히 양식이 되어주시는 성체성사로 그 생명을 키워왔고 견진성사로는 더욱 용맹한 신앙인이 되는 은총을 받는다고 배웠다.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살아왔다면 죄는 무슨 죄며 또 하나님께 무엇을 고백해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많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본성을 지녔으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기 때문에 도대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1요한 3,9). 정말 이 성서 말씀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나는 은총을 입은 사람답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세례 때 받은 의화은총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의와 의지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신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자동적으로 변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성화되기를 원하고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 이뤄지는 상태일 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나약한 인간성이라는 숙명적 옷을 입고 사는 한에 있어서는 잘못을 저지른다. 그리고는 후회한다. 용서를 나누고 화해를 하고 전에 누리던 평화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이런 인간관계 안에서 살고 있다. ‘자비의 성사, 위로와 평화, 화해의 성사’라고도 하는 이 고백성사는 특히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드러내는 성사이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제를 통하여 죄를 사함 받았다는 분명한 안도감을 갖게 해준다. 그리고 또 다시 결심하고 새롭게 되고자 하는 은혜를 받는 때이다. 우리는 매일 아침 저녁 세수하고 또 정기적으로 목욕을 한다. 하나님의 고결한 자녀의 삶을 다듬는데 있어 그 이상의 성찰과 씻음과 치유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닐 것이다. 깨끗이 닦아 놓은 유리창 일수록 더욱 먼지가 잘 보이듯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자신이 죄인임을 더욱 절감하는 법이다. 자주 고백성사를 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 용서(11분) · 고백의 비밀(104분 VHS)

교구 소식

※엄마들을 위한 영화 상영 : 7월19일(월) 오후3시 교구청 별관 1층, 제목-늑대개.

1. 성서 특강 : 7월16일(금) 오전10시, 오후8시 전동교육관 2층, 주제-구약성서의 지혜문학, 강사-임승필 신부(성서위원회 총무), 문의 85-0041(사목국).
2. 교구청 휴무 : 7월17일(토) 제헌절 공휴일 관계로.
3. 천호 피정 안내 : 7월16일-18일 주제-친밀한 인간관계, 강사-박종근 신부, 73-6600.
4. 빛두레 신앙인 학교 : 7월12일(월) 오후7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강당, 강사-정승현 신부.
5. 가톨릭 방송인회 모임 : 7월12일(월) 오후7시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
6. 가톨릭 사진가회 촬영모임 : 7월18일(일) 오전7시 가톨릭센터.
7. 꾸르실료 교구 울뜨레아 : 7월17일(토) 오전10시 해성학교 강당(삼천동).
8. 공의회 문헌 연수회 : 7월17일-18일 오전10시-오후5시 가톨릭센터 회의실, 회비-5천원.

※축! 영명 : 11일(성베네딕도) 박성운, 김반석, 김병운, 김용태, 현유복, 권이복, 유명도, 양경배, 정천봉, 이명재, 이영우 신부님, 13일(성헨리코) 김영수 신부님, 15일(성보나벤투라) 이수현 신부님.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합성세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1)

세탁기, 손빨래에 쓰는 합성세제도 덩어리비누로 쓰되, 세탁기에는 덩어리비누를 잘라 물에 담갔다가 풀어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요심이 (1037) 김병오



성바로 서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터전이 되고자 합니다.  
\*서적 · 카세트테이프 · 비디오  
슬라이드 · CD · 성물 등  
중앙 성당 옆  
☎ (0652) 252-3398

변원구 한의원

변원구(예로니모)  
인후동 모래내 다리 옆  
☎ 252-1783  
253-6355~6

산농서실

고영선(마태오)  
송춘섭(로사리아)  
• 전고사거리 ↔ 병무청사거리  
• 기린B/D(기아차 전시장) 3층  
☎ 88-5580

영은 피아노 교실

이론 철저, 실기 중심의 예능교육,  
음악 이론에 근거한 다양한 취미교  
육임. (교우 가족 환영함, 차량 운행)  
이효은(베로니카)  
동산동 우석중 정문 앞  
☎ 212-0148

금호 펌프카

철근 · 콘크리트 전문 시공업체  
김윤중(안토니오)  
김제시 교동 164-1  
☎ (0658) 546-0466~7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상 · 드레스마춤 대어  
최윤경(유리안나)  
미용실 · 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숙성 발모 · 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841-2496, 855-8653

활티생수

청주교구 미원 성당 샘물  
김일수(요셉)  
소화숙(수산나)  
☎ 전주(0652) 222-7415  
이리(0653) 52-5595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김 동 주

◎ 성소후원회에 적극 가입합니다.

1. L.M 성지순례: 17일, 미사 후 4시(말씀의 전례) 후 7시30분(복전미사)→순남신부님. 2. 청소년 교육을 위한 찬조금 접수: 사무실. 3. 중·고 산간학교: 23~25일, 신청-화,토 미사 전후(23일까지) 여참교리: 17일, 전 9시.
  4. 초등부 신앙학교: 26~31일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5. 모임: 부녀회(13일 어머니미사 후)
  6. 알림: ①매월 첫주 일요일은 성소후원금 납부의 날입니다. ② 다음주일(18일) 청소년 교육을 위한 2차 헌금 있음.
  7. 금주 청소: 중노5,6반. 차주 청소: 중노7,8반.
- 지난주 봉헌금: 979,260원 □ 교무금: 989,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이 상 인

1.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 26일~31일.
2. 중·고등부 하계 수련회: 일시(23일~25일) 장소(진안 용담)
3. 레지오 마리아 Pr종실: 천지의 성모마리아(단장: 최희자) 증거자의 모후(단장: 조제숙)
4. 미사시간 변경: 금요일 오전 10시미사→10:30으로 변경
5. 회합: ①요셉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꾸리아(오늘 오후 2시) ③청년회(오늘 저녁미사 후) ④부녀회(15일 오전 10시) ⑤성우회 연합대회(19일 오전 9시 성당에서 출발합니다)
6. 여름 신앙학교 찬조금: 이상인,황길영,지해룡 각10만원. 빈첸시오회,조옥례,전호승,안칠조 각3만원. 대건회,나경설 각5만원. 황금궁전,익명,김병화 각2만원. 이순례,익명,익명 각1만원. 계 81만원.

□ 지난주 봉헌금: 656,770원 □ 교무금: 1,084,00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 병 설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한 동 옥

1. 모임: ①장년회-17일(토) 저녁미사 후 ②65세 이상 할머니 모임-오늘 공식미사 후 ③교구 울뜨레아-17일(토) 해성학교 강당 ④자모회-다음주일
2. 축! 요셉회 창립: 회장-황옥섭(히벨리도) 총무-이기봉(방지거) 고고하시겠습니까.
3. 중·고생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은인을 찾습니다.
4. 제대꽃 봉헌해주세요.
5. 차주 전례: 해설-권원규, 독서①한동옥 ②이석남 봉헌-장만수 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370,260원 □ 교무금: 686,5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 종 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용

◎ 연중 제 15주일(오늘은 청소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2차 헌금 있음)

1. 재속 프란치스코3회: 7월11일(오늘) 오후 2시.
2. 성심회: 7월13일(화) 오후 2시.
3. 울뜨레아: 7월14일(수) 저녁미사 후.
4. 중고등부 학생 여름캠프: 7월23일(금)~7월25일(일) 2박3일. 장소-부안 천주교회, 파로 광소(출발시간-7월23일 오전 9시 집결)
5.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7월24(토)~7월27일(화)  
\*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910,150원 □ 교무금: 1,136,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현 유 복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 연중 제 15주일

◎ 현유복(베네딕도) 신부님! 영명축일 축하드립니다-오늘 공식미사 후 축하식, 영육간 건강하십시오.

1. 구역장, 반장 모임: 7월16일(금) 미사 후.
2. 청소년사: 4구역 1반 2반.

□ 지난주 봉헌금: 709,000원 □ 교무금: 994,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 봉 희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 성 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이 영 태

1. 금주: 1) 자모회(전10시) 2) 테니스 코트장 개장식(공식미사 후) 3) 울뜨레아(공식미사 후) 4) 일치의 모후 꾸리아(후2시) 5) 사목회(후8시)
  2. 명화 상영: 14일(수) 저녁미사 후 "타터지바고"
  3. 구역반장 회의: 15일(목) 오전11시
  4. 청년연합회 하계 연수회: 17일-18일(전8시30분 출발) 장소 경남 하동군 의신마을
  5. 빼애따회: 17일(토) 오전10시
  6. 교구 울뜨레아: 17일 오전10시(삼천동 해성학교 강당)
  7. 차주: 1) 돈보스코회 연합대회 2) 바나의 성모 꾸리아(후2시)
  8. 사제양성을 위한 성소후원회 회원모집(구역반장, 사무실)
  9. 테니스 회원 모집
- 지난주 봉헌금: 1,792,490원 □ 교무금: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김 상 근

1. 교구 울뜨레아 대회: 17일 전 9시30분 해성학교, 삼천동.
  2. 성서교실 특강: 16일 전 10시, 후 8시, 전동성당 임승필 신부.
  3.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신청: 오늘까지. 회비: 초등부-오천원, 중·고등부-일만원,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4. L.M 예비단원 선서식: 14일 전 11시, 후 7시30분.
  5. 교도사목후원회 야외미사: 12일 전 10시 썬타집결 출발.
  6. 회의: 청년성가대-오늘 저녁미사 후. 자모회-14일 어머니미사 후. 청년회-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7. 탈삼미사: 14일 후 3시30분 우성103동 1203호 탁나타사 모친.
  8. 영명 축일 물적예물: 4,672,000원 감사합니다. 사무실 컴퓨터 사제관 부녀회 주방 냉장고 잔액: 1,972,000원. 진축헌금봉헌
  9. 모친상에 기도해주시서 감사드립니다: 사무장 드림.
- 지난주 봉헌금: 1,405,160원 □ 교무금: 1,527,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 병 갑

1. 자모회: 오늘 미사 후.
2. 반모임: 13일(화) 오전-화산2(B) 오후-평화, 저녁-삼천2 14일(수) 오전-감하, 오후-화산2(A) 미사 15일(목) 오전-오성은하1, 오후-오성은하2
3. 울뜨레아: 다음주일 미사 후.
4. 여름 신앙학교: 7월21일(수)~26일(월) 오전 9시~12시30분. 부모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회비: 삼천원)
5. 성소후원회원 모집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금주 전례: 김경숙, 독서·봉헌: 이옥자, 장문협 차주 전례: 정준성, 독서·봉헌: 김안장, 임홍광

**\* 효지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치 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정 상 호  
FAX 223-3821 사목회장이 동 호

◎ 오늘은 연중 제 15주일입니다(다음주일은 청소년 여름행사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1. 공의회 문헌 연구: 가톨릭센터 3층. 17일 10시-17시, 18일 10시-17시. 대상-성체회원 및 봉사자. 회비-5,000원
2. 성소후원회: 7월18일 공식미사 후(교육관) 이면에 새로 가입한 분들은 물론 고전부터 이미 가입한 분들도 모두가 참석하여주십시오.
3. 학생 여름연수: 중고생-성경학교(19일-20일) 캠프(23일-25일) 초등부-성경학교(21일-24일) 캠프(25일-26일) 장소-장수 봉화교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 청년성가대 단원을 모집합니다. 성가를 부르는 것은 아름다운 기도이며 성가대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를 주님께 봉헌하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 익 도

1. 모임 안내: ①울뜨레아-공식미사 후 ②기우회-공식미사 후 ③빈첸시오회-12일(월) 오전 10시 ④제대회-16일(금) 10시 미사 후
  2.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20일(화)-24일(토) 중등부 하계 수련회: 23일(금)-25일(일) 차주 모임-성전건축 상임위원회, 신축헌금 봉헌액: 1,210,000원 금주 전례: 해설-이인숙, 독서①조제용 ②홍성인 봉헌안내-김형표 부부, 임만호 부부 차주 전례: 해설-임창수, 독서①송재만 ②이화선 봉헌안내-김광년 부부, 신길수 부부
- 지난주 봉헌금: 1,362,820원 □ 교무금: 2,423,000원